

질 좋은 한우로, 농가 경쟁력·브랜드 가치 높인다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 브랜드



출범 20주년을 맞은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의 브랜드인 '하늘소'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며 충남을 대표하는 한우 광역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은 FTA 수입 개방에 대비해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정식 발족했다.

'하늘소'를 브랜드로 정한 조합은 출범 당시 100여 농가 참여에 그쳤지만 현재는 세종과 충남지역 10개 시군의 한우 850농가가 동참해 4만 8842마리의 한우를 사육하는 등 지난 20년간 규모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

조합은 출범 이후 축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축산기술 향상을 위한 사육장 운영, 가축의 증식·방역과 축산물의 안정성 교육 등 교육지원사업과 계통출하, 육가공사업, 사료 및 조사료 등 경제사업을 통해 한우농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이익을 증진시켰다.

조합은 연간 5만 톤의 배합사료, TMR사료를 공동 구매해 농가에 판매함으로써 마리당 약 40만~60만 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거두게 했으며 '하늘소 사업단'에 가입된 조합원에게는 포당 300~400원의 사료값 인하 혜택을 제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켰다. 또한 무항생제 인증 한우 출하 시 도체 중 kg당 15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입 조사료

조합 출범 20년, 규모 큰폭 성장
도매사업 연 매출 200억대 올려

한우 브랜드 '하늘소' 만들어
무항생제 인증 등 경쟁력 강화
학교급식 등에 안전먹거리 제공

내년 내포신도시 직판장 조성
소매사업까지 영역 확장 노려

쿼터 물량을 배정받아 조사료가 부족한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등 한우농가들의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한 육가공센터는 차별화된 질 높은 '하늘소' 브랜드 한우를 연간 200억 원대 공급해 한우농가들의 수익 증대에 효과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늘소'는 일반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조합원들이 사육하는 한우 중 60개월 미만의 암소만을 하루 20여 마리 도축하고 있으며 무항생제 인증 제품 비율도 70%까지 높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무항생제 인증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무항생제 인증 농가를 오는 2027년까지 250농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늘소'의 무항생제 인증 제품은 조합에서 철저한 쇠고기이력시스템과 무항생제 인증 농가 관리를 하는 데다 자체 육가공센터에서 직접 생산, 공급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육가공센터에서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 제공

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하늘소' 무항생제 인증 제품은 흥성, 공주, 천안, 논산, 세종 등의 학교급식에 공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흥성, 예산, 당진 등지의 하나로마트 상당수에도 납품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하늘소'는 이 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농가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판매장 개설 등 소매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이를 위해 '10만근 플랫폼 구축'이라는 유통 활성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내년에 내포신도시 내에 직판장과 음식점 시설을 갖춘 신사육도 건립할 계획이다. '10만근 플랫폼 프로젝트'는 일반 소비자를 중심으로 1만 가구의 명예조합원을 유치해 직접 판매

10만근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상당한 유통 활성화와 판매 증대가 기대돼 안정적인 조합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장 개설은 조합원이 생산한 한우를 육가공센터에서 가공해 판매하는 유통 단계 최소화로 질 좋은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면서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용수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 상무는 "하늘소는 850여 명 조합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한우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며 "내년부터는 소매사업에 진출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해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ilbole@ggilbo.com

◆ '하늘소'는...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의 브랜드 명이며 충청남도 지정 대표 한우 광역브랜드이다. '하늘 아래 정직한 우리 한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늘'은 하늘(天)을 뜻하며 한누리(大世界)와 온세계(全世界)를 의미하기도 한다.



“소매사업 진출로 제2도약 이룰것”

조은성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장 인터뷰

“내년부터 소매 분야에 본격 진출하는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하늘소'를 충남을 대표하는 한우 광역 브랜드로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 조은성 조합장은 “내년에 직매장과 일반음식점 시설을 갖춘 신청사를 짓고 소매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우협동조합은 사료 공동구매 등 한우농가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했다”는 조 조합장은 “출범 당시 100여 명에 불과했던 조합원 수가 고령화와 기업화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850농가에 달하는 등 지난 20년 동안 많은 성장을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 한우산

1만 조합원이 10만근 판매 유통활성화 프로젝트부터 음식점 갖춘 판매장 개설 등 내년엔 사업 다각화 주력

업은 고령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조합 경영에도 상당한 고충이 있다”며 “하지만 사료 사업을 연 250톤, 25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육가공 사업과 정부 대행 업무인 쇠고기 이력제, 암수 검정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조합장은 특히 “하늘소는 소매보다 도매 육가공에 주력해 연간 2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흥성, 예산, 당진 등지의 하나로마트 대부분에 납품되고 있다”며 “두 단

계의 유통 과정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고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소매 분야 사업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발로 뛰는 현장 학습, 말이 아닌 실천으로, 형식이 아닌 행동으로”라는 경영 방침 아래 소통하는 조합을 이끌고 있다는 조 조합장은 “1만 가구 명예조합원을 구축해 직접 판매 10만근을 달성하는 '10만근 플랫폼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조합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 조합장은 “하늘소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브랜드 홍보 등을 대폭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며 “도민들께서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성원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석호 기자 ilbole@ggilbo.com